

■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수많은 법·제도와 추모일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의 비극, 그리고 비극 이후 일터를 바꾸려고 한 수많은 이들이 벌여온 투쟁의 결과입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이날을 추모하며 4월을 <산업재해 추모의 달>로 정하여,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결국 국회는 작년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공장 노동자 집단사망

자본의 탐욕이 부른 참극

■ 1993년 5월 10일, 태국 방콕 인근에 위치한 미국 인기 만화영화 <심슨 가족>의 캐릭터 장난감을 만드는 케이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174명은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화재 경보조차 없는 열악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이였지만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갈까 봄 회사측에서 공장 문을 밖에서 잠근 것이였습니다. 노동자 생명보다 장난감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더 중요했던 회사의 행동에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 케이더 참사 이후 1996년 4월 28일 국제연합(UN)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 노동자들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에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며 전 세계에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각국의 노조 대표자들은 케이더 공장 희생자와 그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이날을 기점으로 매년 4월 28일을 공식적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여개 국가에서는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고,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국제 공동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열

악한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이주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납품을 맞추려고 비숙련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투입시켰고, 노동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입막음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리셀 대표는 본인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형사재판은 5개월째 진행중입니다. 30년전 케이더 참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가 빚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소리소문없이 쓰러지는 노동자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

■ 민주노총은 올해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의 주요 과제로 △ 작업중지권 쟁취 △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행정 개혁을 설정했습니다. 금속노조도 올해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걸고 투쟁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들이 재해 위험을 사전에 알아챌 때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못박자는 것입니다. 이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케 합니다.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란 징계, 손해배상이 남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도 작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빈발합니다. 심지어 중대재해발생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산업재해자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폭염·폭우·폭설·한파가 잦아지는 데도 작업중지권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 노동자는 무대책으로 방치됩니다. 하정 노동자는 위험작업에 내몰리면서도 원청의 압력과 불이익에 밀려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위험을 가장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작업중지권 등 산재예방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자 참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해당 공정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부의 감독을 더욱 강제시켜야 합니다.

자본의 탐욕으로 오염된 일터에, 나와 동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목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1993년 태국 노동자들의 희생이 2025년 우리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